* **선량한 차별주의자 쪽글**

**IT경영학과 201846045 이다은**

**1) 책을 읽으며  단어 뜻 찾기**

[**교착^상태**](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5482&searchKeywordTo=3)**(交着狀態)** 『정보·통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프로세서들이 상대 프로세서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기다리는 무한 대기 상태.

[**기인-되다**](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03260&searchKeywordTo=3)**(起因되다)**「동사」 어떠한 것에서 원인이 생겨나다.

[**가시화-되다**](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85923&searchKeywordTo=3)**(可視化되다)**「동사」 어떤 현상이 실제로 드러나다.

**시혜성** 명사 1. 은혜를 베푸는 성질.

**제로섬게임** 운동 게임 이론에서, 참가자가 각각 선택하는 행동이 무엇이든지 참가자의 이득과 손실의 총합이 제로가 되는 게임.

[**반추-하다**](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31726&searchKeywordTo=3)**(反芻하다)**「동사」 「1」『동물』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어 씹다.

[**균질-하다**](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5106&searchKeywordTo=3)**(均質하다)**「형용사」 「1」 성분이나 특성이 고루 같다.

**주변화-되다** 동사 사회 일반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그 속에 동화되지 못하고 겉돌게 되다.

[**적개-심**](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280849&searchKeywordTo=3)**(敵愾心)**「명사」 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또는 적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와 증오.

[**민권^운동**](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29630&searchKeywordTo=3)**(民權運動)** 『정치』 전제 정치에 반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을 꾀하는 정치 운동.

[**빗장**](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37160&searchKeywordTo=3)「명사」 문을 닫고 가로질러 잠그는 막대기.=문빗장.

[**방증**](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36700&searchKeywordTo=3)**(傍證)**「명사」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줌. 또는 그 증거.

[**전유4**](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79452&searchKeywordTo=3)**(專有)**「명사」 혼자 독차지하여 가짐.

[**첨예-하다**](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89593&searchKeywordTo=3)**(尖銳하다)**「형용사」 「1」 날카롭고 뾰족하다.≒첨리하다.

**2) 내용 요약 (4문장 이하)**

저자는 자신이 차별적 표현을 사용했던 경험으로부터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한다.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지만 나에게는 당연한 특권과 차별은 알아채기 어렵다. 우리는 교차하는 경계로 구분된 집단에 따라 고정관념을 가지고 차별하고 있다. 더불어 저자는 쇼 프로그램에서 누군가를 비하하는 개그 소재와 일상 속의 농담을 비판한다.

**3)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

57페이지에서 우리가 차별주의자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은 생각보다 흔하고 일상적이라는 것, 내가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차별할 의도가 없지만 차별을 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대해 설명한다. 나는 공평한 세상을 지향했고 차별하는 이들을 아니꼽게 보고 비판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런데 책을 읽으며 생각해보니, 나 또한 나쁜 의도 없이 많은 소수자들을 차별하며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 저소득층, 성 소수자 등 소수자들에게 늘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그 조심스럽게 대해왔던 것 마저도 차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내가 여성으로서 차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아도, 그 상황에선 차별했던 이의 말에 나쁜 의도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할 수는 없었다. 차별은 생각보다 흔하고 일상적이며,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나와 내 경험을 저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할 수 있으니까 회의감도 들었고, 어떻게 해야 차별을 피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졌다.

**4) 학우들과 책과 관련해 토론하고 싶은 질문 하나 이상.**

예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학우들과 토론해보면 좋을 거 같다.